

## □ 아시아건축사협의회 15차 이사회

본 참가는 1994년 12월12일(월)부터 16일(금)까지 필리핀 마닐라 웨스틴 프라자 호텔과 필리핀 컨벤션 센터(PICC)에서 개최된 제6차 아시아건축사대회와 제15회 아카시아 이사회에 참석한 그 주요내용을 담고 있다. 본 협회에서는 김지덕 국제위원장이 아카시아 "C"지역 부회장 자격으로 초청되었고 이사회 대표로는 오웅석 전회장과 이정근 국제위원회 자문위원, 이근창, 오근석 국제위원이 참석하였으며 전체행사에는 21명의 회원이 옵서버로 참석하였다.

## 이사회

아시아건축사협의회 이사회는 12일과 13일 양일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12일 오전 필리핀건축사협회장 Nestor Mangio씨의 환영사와 아카시아 의장 Richeto씨의 개회사를 필두로 이사회가 시작되었다. 회의안건 순서와 항목에 대한 재확인이 있었고, 작년 홍콩 14차 회의록에 대한 검토가 끝난후 승인 통과되었다. 이어 총무의 재정보고가 있은후 국가별 보고절차가 있었다.

우리 협회에서는 이근창 국제위원이 작년 일년간의 협회 주요업무 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간략하게 요약 설명하였다. 회의 진행에 있어 특이한 점은 카톨릭 국가답게 회의와 토론에 앞서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주님께 기도를 드려 분위기를 한층 엄숙하게 했다.

그룹활동에 대한 보고는 아시아건축사협의회 정보센터 및 아카이브에 대한 사항을 주무 담당국인 말레이시아 및 싱가포르가 보고하고, 우리 협회에서는 아카시아 북 프로젝트의 진행사항을 보고하였다. 정보센터 및 아카이브에 대한 일은 어떤 예산이 배정되어 시행하고 있는 일이 아니고 당사국 협회 공간을 마련하고 각 회원국 협회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고 있을 뿐이다. 각 회원국 협회는 건축관련 자료들을 수시로 말레이시아협회로 보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제6차 아시아건축사대회

The 6th Asian Congress of Architect(ACA-6)

李廷根/ 국제위원회 자문위원

李根昌/ 국제위원

by Lee, Cheong-Keun & Lee, Keun-Chang

제6차 아시아건축사대회가 지난 94년 12월 12일 필리핀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건축교육을 위한 혁신'이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우리 협회를 포함 아시아지역 15개국 건축사협회가 참여한 이번 행사에는 특히 아시아의 건축환경의 개선과 사회경제적, 문화적 삶을 향상시키고자 시행된 '아카시아 건축상' 시상식과 우리 협회가 3년여의 노력 끝에 출판한 '아카시아 북' 출판기념회가 성황리에 개최된 바 있다.

또한 이 행사는 국가간의 건축정보 교류 및 건축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통한 개방화, 세계화에 적극 부응하는 계기와 WTO체제에 따른 각국의 대응방안이 심도있게 논의되는 등 5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16일 폐막됐다.



우리 협회에서는 아카시아 북 프로젝트에 대해 이번이 네번째 보고서 제출 및 보고가 되는 셈이다. 다행히 이번 이사회 전에 책이 출판되어서 수년에 걸친 진행 끝에 완성을 보게 된 것이다. 회원국 및 회장단 등 모두가 대한건축사협회의 성공적인 업무 완성에 대해 치하를 아끼지 않았으며, 이번 일이 앞으로 아시아 건축사협의회에서 기획하는 이와 유사한 일에 대한 표본이 될 것이라는 점이 공통의 인식이었다.

책 실물을 접하고 모두들 책이 예상보다 잘 나왔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우리 협회의 입장에서는 아카시아 각 회원국에 대해 또 하나의 공신력을 확보하였다. 그리고 이 책이 세계 곳곳에 판매될 때 아카시아와 더불어 대한건축사협회가 세계 건축계에 얼굴을 선보이는 계기도 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문화의 전통이 뿌리 깊고 다양한 아시아의 현대 건축이 동질성을 가지는 실체로서 부각될 수 있는 지에 대한 시험대도 되는 것이다.

작년에 홍콩에서 가졌던 제7차 아카시아 포럼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 싱가포르 협회에서 비디오, 음악, 슬라이드 등으로 내년 싱가포르에서 열릴 제8차 포럼에 대한 소개 및 홍보가 있었다. 이사회 제2일인 13일에는 아카시아 건축상 심의 경위와 심의 결과를 발표하였다. 8개 국가에서 81개 작품이 출품되어 이 중 16개 작품을 입선시키고 5개 부문에 대해 금상이 주어졌다. 한국에서도 서너 작품이 출품되었지만 상을 타지는 못하였다. 주거 부문 중 단독주택에는 타일랜드, 공공주택 부문에는 마카오, 공공건축 부문에는 일본, 상업건축에는 홍콩, 보존 부문에서는 홍콩의 건축가가 각각 금메달을 획득했다. 학생작품 부문에서는 필리핀 학생들의 공동작품이 당선되었다. 1996년에 열리는 제16차 이사회 및 ACA-7의 개최 장소는 스리랑카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차기 협의회 의장 자리에 말레이시아의 Esa씨가 당선됨으로써 스리랑카는 의장을 확보하지 않는 한 ACA-7의 개최권을 반납한다고 하여 다시 논의된 결과 인도네시아에서 개최하겠다는 다짐을 받아들였다.

교육위원회 의장으로부터 올 위원회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그는 두번 연임한 교육위원회 의장직을 이번에 내놓게 되었다. 아카시아 부회장들의 임기도 끝나고 지난 2년간 우리 협회가 속한 C지역 담당 부회장직을 맡았던 김지덕 소장도 임기가 끝나 C지역의 새로운 부회장에 일본의 야마모토씨를 추천받의 하여 일을 맡리게 되었다. 이밖에도 아시아건축사협의회 가입 신청이 3나라에서 있었다. 호주는 벌써 몇번씩이나 가입을 타진해오고 있는데 올해도 아시아 문화를 가진 국가라 볼수 없다는 이유로 가입이 부결되었다. 베트남과 니팔에서도 가입의사를 밝혀왔는데, 반대하는 국가는 없었으며 오히려로 참석을 권유하고 계속 가입을 위한 소정

의 절차를 밟도록 하였다.

## 각국의 주요업무 보고

### - 방글라데시(IAB)

현재 450명의 회원이 있으나 그중 250명은 해외에서 일하고 있으며 회원은 명예회원, 일반회원, 자원회원, 학생회원으로 구분되나 특별한 자격기준은 없다. 건축사 협회는 정부인정기관이 아니며 단지 년회비 U.S \$15을 내고 회원이 될 수 있다. 건축설계는 누구나 할 수 있고 현재는 건축법 초안이 작성되어 정부 주무 주택국에 제출되었다. 현재는 미진하지만 점차적으로 건축전반에 걸친 규정들이 안정되면 협회 활동이 활발해질 것이다.

### - 중국(ASC)

협회 임원 임기는 4년이고 Engineers를 포함, 등록된 회원은 약 100,000명이다. 운영자금은 건설부, 과학기술처의 지원과 자문비로 충당하며 재정부의 감사를 받는다. 분소는 각 지방 또는 도시별로 단독 운영되지만 본협회의 지시를 받는다. 현재 사무소개설 면허는 4개 등급으로 나누어 설계회사에게 주어지며 개인은 사무소등록이 불가하다. 또한 올 하반기에 설계면허제도와 등록제도가 개선될 것이라고 한다. 올 해 시행될 개인면허시험에는 약 20,000명 정도 응시할 것이며, 4일간에 걸쳐 500여 문제풀이와 설계도서 2장을 작성 해야 한다고 한다. 주요사업은 1999년 아시아지역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UIA 총회를 위해 베이징 지방의회와 건설부로부터 재원을 확보했고 그 준비작업 중이다.

### - 홍콩(HKIA)

해외 회원 39명을 포함 1,525명의 회원이 있다. 현재 협회의 모든 사업은 1997년 중국에 이양될 때를 대비하여 시험제도, 교육, 설계업의 절차 등에 관하여 연구중이며 중국, 미국, 영국, 캐나다 건축사협회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 - 인도(IAI)

본 협회는 1917년 건축학생 조직으로 발족하여 영국 식민지령에 흡수되어 있다가 1929년에 건축 전문가에 의해 정식적인 협회가 탄생되었다. 1972년에 건축관계법이 제정되었고, 1990년에 각 분소와 조직이 구성되었다. 회원은 약 700명 가량 있으며, 협회는 자발적인 단체이나 본 단체가 등록하지 않고는 설계업을 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재 등록되지 않는 건축가

(?)들의 설계업이 성행하고 있으며 적절하지 않은 규정과 설계비 규정에 대해 정비작업 중이다.

#### - 인도네시아(IAI)

본 협회는 1959년 반둥 기술학교를 졸업한 몇몇 건축가에 의해 창립되었다. 현재 회원은 약 4,300명이 있고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회원은 약 1,500명이다. 현재 17개의 분소와 3개의 시험회로 구성되어 있고 면허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본 협회의 동의를 받은 자만 소지할 수 있다. 국제활동은 아카시아 뿐만아니고 UIA, AAPH(아시아 주택계획기구), BNA(네덜란드 건축사협회)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특히 BNA와는 독일의 영향을 받은 건축물과 유적물의 연구를 협력하여 수행하고 있다. 본 협회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건축자재를 집대성하여 IAI 건축자재집을 발간하며 본 자료는 시방서 및 입찰서 작성시 표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현재 규정이나 설계비 산정과 맞지않는 건축설계업의 다양화(턴키, 단지계획, 자체설계)에 대비한 제반 규정을 제정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 또한 몇몇 유명 대학에서는 현재 4년인 건축과 교육제도를 5년으로 바꾸는 것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다.

#### - 일본(JIA)

2개의 건축관련단체(JAA, JFPAA)가 1987년에 통합하여 현재의 유일한 건축관련협회(JIA)를 만들었다. 매년 최고의 젊은 건축가를 선정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나카하라 기념관을 설계한 히로시 군과 "FUN HOUSE"를 설계한 타다수 군에게 수여되었다. 현안문제는 현 건축법에는 Building Engineers로만 건축가가 정의되어 있어 타국과의 용역적 형평을 위해 일본 건축가의 기준 설정을 위해 "JAIA 자격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다. 또한 회원의 정보수집 시스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 한국(KIRA)

현재 약 4,800명의 회원이 있으며 협회 운영비는 입회비외에 설계도서등록제를 이용, 설계비의 약 1%을 각출하여 사용한다. 협회 자체 건물을 가지고 있고 작년부터 건축사자격시험 관리 등 전반적인 행정업무를 정부로부터 위임받아 시행하고 있다. 특히 각 회원국에서 관심이 많은 성수대교 붕괴는 대교 건설이후 급격한 경제성장과 건설붐으로 설계하중을 초과한 대형 화물차량의 급증으로 인한 교량의 피로에 의해서인지, 설계의 잘못인지, 유지관리의 문제점인지는 현재 전문기관이 조사중이며 모든 건설공사가 부실한 것은 아니다. 설계비 보수율은 현실적으로 적합하도록

인·월 개념으로 바뀌었다. 아카시아북을 출간하였고 자세한 내용은 출판기념회에서 보고할 것이다. 기존 건축법이 개정되었으며 가장 관심사였던 건설회사의 건축 설계업 진출을 본 협회의 노력으로 저지하였다.

#### - 말레이시아(PAM)

학생회원 176명을 포함 1,825명의 회원중 등록된 건축사는 1,230명 등록된 사무소는 715개이다. 정부의 저렴한 주택공급 방침(년간 약 60,000호의 저가주택 건설)에 협회가 적극 협력하고 있다. 정부에서 GATT를 승인한 후 협회의 입장은 어느 외국 건축가도 현지법(건축법, 건축사법, 기타 관련법)에 맞으면 설계업을 할 수 있다. 국내 건설업 부분의 문제는 백만명에 이르는 외국 노동자의 불법 취업과 외국 건축사들의 불법설계로 인해 골치를 앓고 있다.

#### - 몽고(UMA)

예술가에 의해 1956년에 설립되어 1963년에 건축가에 의해 정비되었고 작년에 처음으로 자격제도가 신설되어 시험을 치루어 30명에게 면허가 수여되었다. 현재 회원은 약 300명이고 이중 절반이 진출활동을 하는 사람이다. 경제활동의 활성화와 더불어 개인 설계업이 3~4년전부터 시작되었다.

#### - 파키스탄(IAP)

최초로 설립된 카라치 건축대학을 기본으로 라호르 국립대학내의 건축대학을 비롯하여 다우드 기술대학과 잠스호르에 위치한 머란 대학내의 건축대학 설립에 정부와 개인 설립자를 협조하고 있다. 특히 회원 뿐만아니고 건축전문가를 초빙하여 Patr-Time으로 강의도 해주고 작품 평가도 해주고 있다. 현재 학생 또는 인턴 회원을 제외하고 약 760명의 회원이 있다. 입회자격은 5년제 건축과를 졸업하면 건축가로서 협회에 등록할 수 있다. 협회지는 아직 발간되지 않고 있으나 회원이 출판하는 "Habitat" "ARCHITIMES"라는 월간지가 발간되고 있다. 젊은 건축가의 실업사태에 대하여 정부 고용확대를 하도록 노력중이며 여성 건국가의 합법적인 영역 확보를 위해 연구하고 있다.

#### - 필리핀(UAP)

1974년 건축3단체(APGA, LPA, PIA)가 통합하여 UAP를 설립한 이후 계속 확장 발전되고 있다. 현재 66개 분소에 약 8,000명의 등록 건축사가 있다. 건축사 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이나 학생도 회원이 될 수 있다. 협회에서 수여하는 건축상을 고유건축물 설계와 저렴한 주택 설계분에 대해서만 매년 시상

을 하고 있다. 협회에서는 매년 12월 2째주일을 건축 주일로 설정하고 세미나, 작품전시회, 자재전시회 등을 통해 자질 향상과 홍보를 하고 있다. 또한 건축교육 향상을 위한 건축학교 학장 모임을 매년 2차례 갖고 있고 올해에도 주요 10개 항목의 토의가 있었다. 올해 파나트보 화산 폭발에 의한 재해를 돕기 위해 협회에서 인력지원을 했고 회원의 복지향상을 위한 연구를 하고 있다.

- 싱가포르(SIA)

건축가의 지위향상을 위해 1961년 발족한 이후 현재는 정부에서 가장 신뢰받는 협회로 발전하였다. 협회의 목표는 도시의 미를 살리고 환경개선을 최우선으로 세계적인 건축물 창조와 최상급의 건축기술을 향상하는데 두고 있다. 현재 회원은 국내 844명, 국외 104명으로 구성되며 학생회원은 학장의 추천을 받아 입회하는데 현재 54명이다. 주요 업적으로는 5회의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특히 국제인증 ISO9000 획득을 위한 특별강연회를 가진 바 있으며, 일정 규모 이상은 추후 ISO 9000을 획득하지는 않더라도 할 예정이다. 현재 1개 회사만 획득하였다. 또한 회원의 정보체계를 위해 CD-ROM정보 시스템을 구축했고 매년 2차례에 걸쳐 수정 보완하고 있다.

- 스리랑카(SLIA)

영연방하에서 1957년 부터 활동을 시작했으나 해방후 1976년에 정식 발족했다. 현재 학생회원 13명을 포함 총 326명의 회원이 있다. 건축가의 특별한 자격기준은 없으나 협회에 등록된 "Chartered Architect"와 "Registered Architect"만 설계실무를 할 수 있다. 또한 건축가 이외에 정부에서 인정하는 자도 설계를 할 수 있다. 협회에서 출간하는 분기별 잡지인 "SRILANKA ARCHITECT"에는 건축 전반에 걸친 정보를 수록하고 있다. 또한 올해에는 "Excellence in Architecture"라는 주제로 Forum을 개최하여 건축가와 학자들의 건축방향과 현안문제를 토의하였다. 현재 가장 심각한 문제는 협회와 협의없이 행하는 외국건축가의 건축활동 그리고 저가 설계비수주와 건축가를 이용하지 않고 설계를 하고 있는 민도(民度)에 있다.

- 타일랜드(ASA)

1933년에 "The Association of Siamese Architects"라는 명칭으로 33인의 건축가에 의하여 발족하였으며, 세계 2차대전 이후 타일랜드로 국가명칭이 바뀌었음에도 협회 명칭은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주요 현안문제로는 외국 건축가의 진출, 국내 능력있는 건축가의 부족, 부적절한 제반 건축제도 및 국민의 의식부족과 환경 및 도시계획의 미비 등을 들수 있고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협회가 노력하고 있다.

이사회 워크샵

13일 오전에는 이사회 워크샵이 있었는데 전 이사회 참석자들이 세계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였으며 그 토론의 요지가 오후에 이사회에 제출되었다.

제1그룹은 자문위원 빌그라미씨가 좌장으로 '아카시아의 장래역할과 5개년 계획'이란 주제를 가지고 진행하였으며 토의 내용의 요약은 다음과 같다.

1. 장차 아카시아 행사는 개최국의 역량에 맞도록 적절히 규모를 조정해야 한다.
2. 아카시아 포럼의 형식은 좀더 확고한 틀을 가져야 한다.
3. 협의회 의장과 건축상 위원장 등은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아시아건축사대회 개최국에서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아카시아 건축상의 응모 등에 관한 시험을 사전에 충분히 통보하여 보다 많은 응모자를 많이 확보하고 충분한 준비기간을 준다.
5. 역대 아카시아 이사회의 구성원들로 구성된 친목회원제를 만들어 아카시아에 아무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공헌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좋다.
6. 아시아건축사협의회 규정에 대한 제반 사항은 이미 발간된 아카시아 편람을 적극 이용해야 할 것이다.
7. 계간잡지로 발간된 바 있는 ARCHASIA는 계속되든지 아니면 폐간하든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8. 유사한 국제 건축단체와의 병합 등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
9. 매년 각 회원국 협회가 제출하는 협회 활동 보고서 양식에 아시아건축사협의회 이사회 결정사항의 실천 내용에 대한 서술이 포함되도록 한다.

제2그룹은 싱가포르의 Gia씨가 좌장으로 GATT와 건축사협회의 입장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1. GATT의 기본원칙에는 찬동한다.
2. 그러나 조건적 정의들은 조심스럽게 받아들여져야 한다.
3. 세계 건축용역시장 내지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려면 교육이 중시되어야 한다.
4. 그리고 용역의 기술 수준을 적절히 발전시켜야 한다.

Tay Kheng Soon씨가 주재한 제3그룹의 주제는 21

세기 건축 전문직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것이었다.

1. 건축사는 건축환경의 생태문화적인 조정자이다.
2. 오늘 이사회에서는 생활환경의 조성이 대 조직들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많이 받고 또한 이 조직들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사람은 중간관리자들이다.
3. 따라서 이러한 중간관리자들에 대한 환경인식을 제고하는 교육 등의 활동이 필요하다.
4. 건축환경 개선을 위해선 수평적 사고가 필요하다.
5. 좋은 건축 전문가를 키우려면 교육기관에서 우수한 학생을 확보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건축사는 사회적 영향력이 있으며 수입이 좋다는 것을 젊은 세대에게 증명해야 한다.
6. 건축과 학생들의 현장실습은 설계사무실 뿐아니라 여러 직종이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한다.
7. 건축사 보수요율에는 Site Planning에 대한 별도의 계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8. 건축전문가는 환경설계에 개념정립이 중요한 만큼 건축상에 개념의 우수성에 대한 시상도 포함되어야 한다.

### 출판기념회(Book Launching)

14일 오후에는 ACA-6 개회식이 있었고 바로 이어서 "Contemporary Architecture in Asia"의 출판기념회가 진행되었다. 우리 협회가 수년간 비용과 인력을 들여서 성취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 의의가 깊었다. 먼저 이정근 국제위원회 자문위원이 이 ARCASIA BOOK 프로젝트의 시작부터 완성되기까지의 과정 및 책의 구성과 내용에 대해 개략적으로 요약하여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의 중간단계에서 최종단계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대한건축사협회 오웅석 전회장의 인사말이 있었다. 그 요지는 아시아 각국이 각각 뿌리깊은 문화적 전통과 다양한 건축문화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서구화의 과정속에 많은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고유문화를 바탕으로 한 서양의 영향에 대한 대응은 세계적으로 독특한 건축환경을 낳고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은 이 지역의 활력있는 건축창조의 요체를 보여주고 있으며 앞으로 세계건축의 발전에 이바지할 아시아 건축가들의 공헌을 예견해 주는 것임을 천명하였다.

이어서 김지덕 국제위원장이 이 책을 만드는데 참여하고 도와준 각국 협회와 아카시아 임원들 및 참여 건축가들에게 감사의 뜻을 밝히고 우리 협회가 각 회원국에 주는 증정본을 증정하였다. 축사로서 아시아건축사협회의 회장인 리체토씨가 대한건축사협회의 노고에 대해 치하하고 이 책이 가지는 아카시아의 발전을 위한 이정표로서의 가치를 역설하였다. 전회장이며 자문위원인 빌그라미씨가 축사말을 통해 이 책에 그치지 말고 이와 유사

한 또는 더 발전된 책을 아카시아에서 계속 출판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 맺는말

학술회의의 주제는 '건축학습의 개혁' 이었는데 6명의 주제 발표자들이 각자의 논리를 전개하였지만 주제에 수렴하는 논의의 전개가 어려웠다는 점이 아쉽다. 마지막 날 오후에는 참가자들이 각 발표자들의 그룹으로 나뉘어 작은 단위로 토론을 계속하고 나중에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여 효율적이라고 느껴졌다. 이번에는 필리핀의 필립 멘도사씨가 작사하고 쏘니 니콜라스씨가 작곡한 ARCASIA MARCH라는 아카시아의 노래가 만들어져 연주되고 불려졌다. 해가 갈수록 아시아건축사협의회는 틀을 갖추어 가고 있다. 이미 국제사회에서 활발하고 영향력있는 건축관련 조직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는 근래에 UIA 및 서구 유수한 나라의 건축사협회 등에서 지대한 관심이 표명되고 있음에서 알 수 있다. 또 여러 아시아 국가에서 가입하려고 애쓰고 있다. 대한건축사협회는 가입한 연조가 깊지 않지만 다른 나라들을 능가하는 활동을 보임으로써 무게있는 발언권을 가지게 되었다.

한국의 세계화 또는 한국 건축계의 세계화가 결코 어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닐 것이다. 이런 국제조직을 통해서 배워올 것은 배워오고 국제 건축계에 공헌할 만큼 공헌함으로써 한국 건축계는 세계의 흐름속에 호흡을 같이 하게 되리라고 생각한다. 단지 해마다 논의되는 일이지만 국제활동이 몇몇 참가자들의 일로서 끝나버린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배워서 우리협회의 내실을 기하고, 회원 각자가 이 흐름속에 동참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부기할 사항은 몽고 대표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그들과 정기적으로 정보 및 인적교류를 하자는 의향서를 교환하였다는 것이다. 두 나라 사이에 서로 주고 받을 것이 많이 있으리라 여겨진다. 금년 상반기에는 정식 협약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 □ 제5회 학생 건축 잼버리

- 장소 : 필리핀 마닐라 UP (University of Philippines)
- 기간 : 1994. 12. 14~16
- 참가자 : 김덕원 (USC -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김남훈 (한양대학교)

○주제 : "Technological Trends and Innovations in Architectural Education"

- 20C에 들어서 눈부시게 발전한 건축기술, 재료의 발달은 건축교육의 방향이 Technology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만들었다. 이것은 각 지역에서의 문화 환경적인 관심이 배제된 국제적 스타일의 건축을 양성하게 된다. 우리는 이러한 경향을 따라야 할 것인가? 우리가 창조하고 생산하는 환경이 각 사회 국가가 가지는 문화와 가치를 반영하고 대중들의 필요에 진정으로 답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들이 우리의 문화적 유산과 전통적인 가치를 파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문제점이며 그 응답은 건축교육에 있어서의 합리적인 변화를 위한 지침이 될 것이다. -이하 중략-

## 서언

지난 12월 14일부터 16일 동안 ACA6(the Sixth Asian Congress of Architects) 행사의 일환으로 학생 건축 잼버리가 필리핀 마닐라에 소재한 University of Philippines 캠퍼스에서 개최되었다.

총9개국에서 두명씩의 공식대표단을 포함해서 약 100명이 넘는 학생이 참가하는 큰 규모의 행사였다. 3일간의 공식행사와 등록일인 13일을 합해서 총 4일간의 합숙을 통해서 공식적인 행사 뿐 아니라 서로의 친목을 다질 수 있는 많은 프로그램을 수행하였다.

### • 공식행사 일정(요약)

- 1994년 12월 13일 - 등록 개시
  - 참가자 Orientation
  - 환영만찬
  - 친목의 밤
- 14일 - ACA6 공식 개회식 참가 -
  - First Arcasia Student Prize 발표
  - 빌딩자재전시회 참관
  - 세미나
  - 문화의 밤(Cultural Night)
- 15일 - 세미나
  - 학생 건축 잼버리 Opening Cerenony
  - Nayong Pillipino Tour
  - Friendship NighT
- 16일 - Work Shop
  - 회의
  - 작별파티

## 잼버리행사

금번 행사는 "Technological Trends and

Innovations in Architectural Education"이라는 대주제 아래 ACA6 행사와는 독립적인 구성과 운영으로 이루어졌다. 전체적인 프로그램의 구성은 각국의 교육체계와 그 향방에 관한 것이라기 보다는 건축을 전공하는 아시아지역 학생이 하나의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친목과 유대를 강화하자는데 맞추어져 있었다.

스텝의 구성은 Archt. Miguel C. Guerrero를 잼버리 의장으로 하여 1명의 부의장과 학생측 리더로써 Melanie Ching이 잼버리 Director로 수고를 했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Planning, Finance, Operations에 각각 독립된 Director를 두어서 총 8명의 스텝들이 전체행사일정을 이끌어 갔다.

이번 잼버리행사의 문제점은 각 행사장소간 이동에 따르는 교통체증을 고려 안한 나머지 대부분의 세미나들이 시간의 부족 때문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과 참가한 학생들이 사전에 가질 수 있는 지식이 부족하였고, 프로그램 구성이 전체주제와 다소 거리감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반면 아시아 지역의 건축전공 학생들이 숙식을 함께 하면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아시아지역의 문제를 함께 공유하고 고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었다고 본다.

## 맺음말

학생 건축 잼버리는 격년으로 개최되며, 이번 5회째를 맞아 10년이라는 전통과 권위를 가지게 되었다. 그간 한국에서도 끊임없이 학생들이 참가해 왔으며, 전세계에 그 유래가 없는 건축 전공 학생들만의 모임이다. 또한 아시아 지역에서만 이런 행사를 가진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이번 행사의 주제가 국제화되어 가는 건축에서 우리의 전통과 문화의 위치를 재정립하자는데 있었듯이 이미 건축의 행위에는 국제화가 이루어진 지 오래라는 점에는 공감의 뜻을 표한다. 이제 우리의 건축도 세계로 눈을 돌릴 때이며 그 초석이 되어야 하는 것이 건축교육이라고 생각한다. 현재에도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우리의 교육현실이 하루아침에 바뀌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지만 끊임없는 도전과 이번과 같은 기회의 제공에서 그 가능성은 무한해 질 것이라 믿는다.

또 이번 행사의 의의를 바로 그런 곳에서 찾으려 한다면 훨씬 가치있게 평가 받을 수 있으리라고 본다. 아무쪼록 건축사협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계속되기를 바라면서 이런 기회를 갖게 해준 협회에 감사드린다.